

긴급조치 9호 위반 광주·전남 51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박병기·문승훈씨 등
현재 위헌결정 따라

사건이 오래된 탓에 발생 시점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관련자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과거 사 소송의 소멸시효 적용을 놓고 경찰과 청구인들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대 박병기(철학과) 교수와 문승훈 광주·전남민주화운동지회 공동대표 등 51명은 지난 9월 21일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 등 인신 구속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송이 제기된 각 지방경찰청에 과거사 관련 국가소송 수행 요령과 서류 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내년 초엔 긴급조치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에 일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현재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엔 각각 1건·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모두 121건이다.

박 교수 등 22명은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과 8월 초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소송이 제기된 각 지방경찰청에 과거사 관련 국가소송 수행 요령과 서류 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내년 초엔 긴급조치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에 일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현재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엔 각각 1건·7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모두 121건이다.

나머지 29명은 재심 소송 중이거나 재심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는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승훈 광주·전남민주화운동지회 공동대표는 "(우리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라며 "역사적인 정의를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 심리는 다음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일부는 경찰 이외에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 2호는 긴급조치 위반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처방 등

전남서 103곳 적발...34% 증가

전남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체조제 고지위반이나 임의변경 등이 11건, 약사 위생복이나 명찰 미착용 9건, 의약품 혼합진열 판매 5건 등이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 약국(방) 77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관리실태를 점검해 103곳(9월말 기준)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곳에 비해 26곳(34%)이 늘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고지위반 사례 등은 형사고발 됐으며 다른 위반 업소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시·군별로 목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와 보성 각 9곳, 순천·담양·화순 7곳, 여수 6곳 순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고지위반 사례 등은 형사고발 됐으며 다른 위반 업소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위반 내용은 무자격자 처방전 기재 사항 미기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2건으

로 뒤를 이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고지위반 사례 등은 형사고발 됐으며 다른 위반 업소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고지위반 사례 등은 형사고발 됐으며 다른 위반 업소도 업무정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 따라하기

17일 광주시 남구 광주대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린 아동극 '알라딘과 요술램프' 공연을 관람하던 어린이들이 연기자들의 몸동작을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연은 광주일보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주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시 2차 경쟁률 더 높아졌다

호남대 8.4대1, 광주여대 6.95대 1, 동신대 6.5대 1...조선대도 3.5대 1

광주·전남 주요대 접수 마감

어려운 수능과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수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8.4대 1을 기록한 호남대로 지난해 5.4대 1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여대가 6.95대 1, 동신대 6.5대 1, 광주대 6.36대 등이었다.

442명이 몰려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호남대 뷰티미용학과도 3명 모집에 65명이 지원해 21.7대 1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지난 15일 수시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2차에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조선대도 2316명 모집에 8089명이 지원해 3.5 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경쟁률(3.3대1)보다 약간 상승했다.

모든 대학들의 간호학과는 선호도가 높아 송원대 19.6대 1, 광주여대 12.3대 1, 조선대 10.3대 1 등을 기록했다.

17일 수시 2차 접수 마감결과에 따르면 수시 1차때 비교적 지원율이 낮았던 대학들은 이번 모집에 경쟁률이 큰 폭으로 뛰었으며, 수시 1차때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들도 어려워진 수능 탓에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과별 경쟁률은 변함없이 취업이 용이한 학과로 불리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보건·의료·미용·사회복지 분야 학과는 대학마다 거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 학부가 11.3대 1,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17.3대 1,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11.6대 1.

미 대학 연구 결과

커피를 취침 6시간 전에 마셔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웨인 주립대학 의과대학 행동신경과학교수 크리스토퍼 드레이크 박사는 잠자리는 물론이고 취침 3시간, 6시간 전에 커피를 2~3잔 마셔도 수면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커피 6시간 전에 마셔도 수면 방해"

뉴스 포털 피조그 닷컴(Physorg.com)이 14일 보도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건강한 사람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드레이크 박사는 밝혔다. 그의 연구팀은 이들에게 예정된 취침시간 직전, 3시간 전, 6시

간 전에 각각 알약 하나씩을 주어 먹게 하고 평소처럼 잠을 자게 했다. 그 결과 취침 직전과 3시간 전에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셨을 때 수면시간이 평소보다 짧아졌다고 나타났다. 취침 6시간 전에 카페인을 마셨을 때도 수면시간이 평소보다 평균 1시간 줄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0분 해질 17시 25분 달출 18시 00분 달몰 07시 26분

비 온 뒤 기온 뚝
구름 많은 가운데 비 내리는 곳 있었다.

광주	비	3/6℃
목포	비	3/6℃
여수	비	4/8℃
나주	비	2/6℃
완도	비	4/7℃
구례	비	2/7℃
강진	비	3/7℃
해남	비	3/7℃
장흥	비	3/7℃
순천	비	1/6℃
영광	비	2/6℃
진도	비	4/6℃
전주	비	2/7℃
군산	비	3/6℃
남원	비	0/5℃
흑산도	비	5/7℃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날씨						
최저/최고	2/8	4/13	3/15	5/15	3/14	4/13

광주 초겨울 추위

이달말 남부지방 첫눈

지난 12일 광주에서 첫얼음이 관측된 가운데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이달 말 남부지방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보인다.

최저 기온은 광주 3도 등 1~4도, 낮 최고기온은 6~8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다가 서서히 풀리겠으며 25일경 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 5mm의 비가 내려 체감온도가 푹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아

한편, 기상청은 광주 지역 평균 첫눈 평년일은 11월25일(목) 11월28일, 완도 12월6일, 여수 12월9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25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도심 헬기 추락...기장 등 2명 사망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LG전자 소속 헬리콥터 충돌

주말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의 고급 고층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내에서 건물에 헬기가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서울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형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아파트 102동 24~26층에 헬기가 충돌한 후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 조종사 박인규(58), 부

조종사 고종진(37)씨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아파트 21층에서 27층까지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상당 부분 부서졌다. 지난 2001년 육군헬기가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 상단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다 날개가 조형물과 부딪혀 추락한 사고 이래 도시 한복판에서 헬기 사고가 발생한 것도 12년 만이다. 연합뉴스

제15대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광주중앙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과 비전을 지닌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 청빙부문** : 담임목사
- 자격** : 1) 정규대학 졸업 / 신대원 졸업
2)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자기소개서 및 사모 소개서(성장배경, 신앙관, 목회동기 등 포함)
3) 최근 설교 CD 또는 MP3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대학 및 신대원 졸업증명서
6) 노회 소속 증명서
7) 추천서
- 제출기한** : 2013년 11월 27일(수)까지
- 제출처** : (500-837)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318-18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e-mail : kyt7656@hanmail.net
- 연락처** : 사무국 ☎ 062-373-6946
사무국 고응태 장로(010-4608-0113)
-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접수도 가능합니다.
발송시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라고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진단서는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통지 받은 분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당회장 조경목 목사 외 당회원 일동